

#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청신호

### 복권위, 건립 사업비 48억 책정... 2020년까지 353억 투입 전주에 3000여평 규모로 건립

전북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용사 등 국가유공자를 원활하게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보훈요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국에서 7번째로 전북에 보훈요양원이 건립될 경우 전북지역내 3만여명의 보훈대상자가 광주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시간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보훈요양원 유치는 올해 전북도정이 '전북 뭇 찾기'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전북인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관유치에 나선 뒤 성과를 거두게 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2일 2018년 복권기금 운영계획 심의결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비로 48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 정부안을 확정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을 비롯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요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현재 수원과 남양주,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등 6곳에서 보훈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혁신도시 시즈2 준비 1일 오후 2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전주시·원주군·혁신도시 일주기관 및 관련자들이 참석해 혁신도시 시즈2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전북동부보훈지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북지역 내의 보훈대상자는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보훈 요양원이 없어 광주까지 내원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복권기금) 353억 원을 투입해 전주에 3,000여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과 작업치료실 등이 갖춰질 전망이다.

박철용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호

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훈지청과 힘을 합쳐 보훈요양원이 공공요양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공개채용 오디션 ‘잡영챌린지’ 개최

### 12명 본선 올라... 전북은행 등 4개 대표기업 참여

지역 대표기업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인재를 채용하는 잡영챌린지(Job Young Challenge)가 5회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1일 개최됐다.

4월 청년실업률이 11.2%로 평균 실업률 4.2%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청년 도전정신 함양 및 새로운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잡영챌린지는 2015년 상반기 이래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 5회째를 맞아 전북도 대표적 청년고용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잡영챌린지 시즌5는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스타항공, 대우전자부품 등 지역인재 채용을 선도하는 4개 대표기업들이 참여했다.

전북도,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 지방중기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고용 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주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았다.

그간 잡영챌린지는 1기 61명, 2기 59명, 3기 379명, 4기 412명이 참가, 이번 시즌5는 총 436명이 신

청,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청년 실업을 실감케 했다.

참가자들은 3차례의 예선과 3일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역량을 가다듬고, 최종적으로 36:1의 경쟁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오른 12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했다.

본선 무대는 12명의 청년들이 8개 노사민정 기관장과 기업 임원 평가단, 400여명의 참관단 앞에서 자신만의 꿈과 열정, 패기를 감동의 무대를 연출, 큰 갈채를 받았다.

도 진흥 정무부지사는 “도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잡영챌린지 뿐만 아니라 체감도 높은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은 일자리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 사업추진 등 정부 청년고용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여름 물놀이 안전관리 돌입

전북도가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놀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난 3월까지 도내 계곡, 하천, 강 등 물놀이 대상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을 10개 시군에 109개소, 위험구역은 8개 시군에 45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기에 물놀이 관리지역에 구명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시설 정비 및 배치와 기존 시설 또한 정비를 서둘러 정비했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 사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물놀이 위험구역 표지판 등 805개를 금년에 설치·구비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올해 복권기금 등 60억 투입 노후주택 1500가구 보수 목표

전북도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주거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전북도는 2006년부터 민생안정 시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희망을 주고, 일선 사업 현장에서는 지붕개량, 벽지·장판 교체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복권기금이 지원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17년까지 137억원의 복권기금을 지원, 8,817가구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지붕, 욕실, 주방의 개보수에 따른 인력 약 3만 5,000여명(8,817호×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전북도는 수해지역복구와 일자리 효과가 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2017년 복권기금 일자리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7개 시도 중 단 2개 자치단체만 선정하는 ‘일자리창

출사업(총액 49억원)’에 전북도가 절반이 넘는 30억원을 추가 확보, 전국 최고, 역대 최고 규모인 93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2017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총 60억을 투입, 1,500가구 보수를 목표로 1~3월까지 대상자와 위탁기관을 선정, 10월 전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예산과장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들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군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 청년 일자리 윈스톱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군산대학교는 1일 군산대학교 제2학 생활관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제막식을 개최하고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종합 서비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제막식에는 군산대학교 총장 및 주요 보직자, 지자체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청년층(대학생) 특화 통합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 지원으로 설치되었다.

대학 내 분원별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윈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전국 41개 대학에 창조일자리센터가 설치되었고, 올해에는 20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군산대학교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취·창업지원과,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여학생행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진로 및 취업지원 관련 기관이 다수 설치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센터 설치를 계기로 이들 기관이 기능적 연계를 통한 재학생 취업 지원활동에 상승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산대는 군산고용노동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는 향후 ‘청년특화통합 진로 및 취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청년 고용활성화’를 비전으로 ▲진로 및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 ▲효율적 취업지원 서비스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실무형 미래인재를 위한 종합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장 현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17-713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1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창천 하천기 본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계획명: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치: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월산계) ~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주진천 합류점)
  - 연장: 12.05km
  - 계획수립자: 고창군수
- 공람장소 및 기간
  - 공람장소
    - 고창군 재난안전과, 고창읍사무소, 아산면사무소
    - 고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ciass.go.kr)
  - 공람기간: 2017년 5월 30일 ~ 6월 28일(25일간, 공휴일 제외)
-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하천명	일시	장소	비고
고창천	2017년 6월 13일(화) 10시	고창읍사무소	
	2017년 6월 13일(화) 14시	아산면사무소	
-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
  - 제출기간: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재난안전과(063-560-2666)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5월 30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